

# 「歷代世年歌」 解題

韓 永 愚\*

## 一. 編纂배경

朝鮮 世宗代에는 傳統文化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작업의 일환으로서 史書 편찬이 활발하였다. 前王朝인 高麗의 文化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노력이 高麗史 편찬작업으로 나타났다. 새 王朝의 創業과 守成과정을 정리한 것이 龍飛御天歌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한편, 世宗代에는 國史에 대한 관심과 병행하여 中國史에 대한 이해도 매우 깊었으니, 司馬光의 資治通鑑과 朱子의 資治通鑑綱目을 訓義本으로 印出한 것은 그러한 이해와 관심의 일면을 반영하는 것이다.

史學은 經學과 더불어 用과 體의 관계를 가지면서 儒學의 本領을 이루고 있는 까닭에, 儒敎國家로 출범한 조선왕조는 國初부터 史書 편찬과 史學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고, 世宗代의 史書 편찬도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世宗代의 史書 편찬은 王자신이 編史의 方向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똑같은 官撰·共撰의 형식을 띠면서도 종전에 볼 수 없던 현상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는 李氏王權이 世宗代에 이르러 확고한 守成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世宗 자신이 守成主로서의 강력한 意志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文化 건설의 先導役割을 자任한 까닭이었다.

그리하여 世宗代의 史書 편찬은 本國史와 中國史를 막론하고 王의 주도하에 진행되었는데, 高麗史 편찬만은 王과 修史官의 입장의 차이가 조정되지 못하여 재위기간에 완성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朝鮮王朝建國史에 해당하는 龍飛御天歌를 王의 주도하에 在位 28년만에 완성한 것은 비슷한 시기에 訓民正音を 창작한 것과 아울러 일단 王의 意志가 관철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世宗代에 완성을 본 중요한 史書의 하나는 歷代世年歌이다. 이 책은 詩歌의 형식을 빌었기 때문에 文學作品으로도 이해될 수 있으나, 내용은 어디까지나 中國과 우리나라의 歷史를 詩歌로서 읊은 歷史冊이다. 詩歌形式의 史書라는 점에서 그것은 龍飛御天歌와 유사하다. 歷代世年歌는 世宗 18년에 王命으로 尹淮·權躔(蹈) 등이 편찬하였는데, 上篇의 歷代世年歌는 尹淮가 元初의 詞人 曾先之가 지은 歷代世年歌에<sup>1)</sup> 註釋을 가하고 張美和의 詩를

\* 서울大學校 人文大學 副教授

첨가한 것이고, 下篇의 東國世年歌는 權躔(蹈)가 撰次하고 여기에 註釋을 붙인 것이다.

世宗이 歷代世年歌를 편찬케 한 動機에 대하여 李季甸의 序文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主上殿下概念學者昧於史籍 渙起宸斷, 編修資治通鑑訓義 以傳于世 且慮初學未能遍觀 表章廬陵曾先之歷代世年歌 命藝文館大提學臣尹淮參考註釋 獨元朝闕焉 補以臨江張美和之詩 至於東國年代 亦不可不知也 命吏曹判書臣權蹈撰次 仍爲註解 親加睿裁 極爲明備 首以中國爲上篇 東國爲下篇 俾篇字所模印 廣布……臣伏觀是書 篇帙雖簡 開闢以來 運祚之長短 國勢之離合 本末大略 一覽瞭然…」(世宗實錄 卷72 世宗 18年 4月 庚子)

즉 이 책은 資治通鑑訓義本을 낸 데 이어, 初學者들의 歷史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王命으로 편찬한 것이라 한다. 資治通鑑은 분량이 방대하여 歷史教材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詩歌형식으로 간추려진 歷代世年歌를 받아들인 것 같다. 다만 역대세년가에는 元朝의 역사가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은 張美和의 詩로써 보충하였고, 또 尹淮로 하여금 全冊에 대한 註釋을 달게 하여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하였다.

歷代世年歌의 下篇을 구성하고 있는 東國世年歌는 「東國年代도 알지 않으면 안된다」는 세종의 배려에 의해서 편찬된 것이다. 따라서 歷代世年歌 上下篇은 中國史와 本國史를 모두 다룬 것으로서, 이를테면 東아시아世界史와 韓國史를 합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歷代世年歌 편찬에 참여한 尹淮와 權躔는 高麗史 편찬에도 참여한 人物로서, 尹淮는 世宗 6년에 편찬한 讎校高麗史의 主撰者이며, 權躔는 世宗 24년에 高麗史全文(大全)을 主撰하고 同王 28년에는 龍飛御天歌를 主撰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世宗代 史書 편찬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할 인물들이지만 실제로 그들이 편찬한 讎校高麗史나 高麗史大全은 王의 의취에 충분히 부합되지 못하여 반포되지 아니하였다. 오직 용비어천가와 역대세년가만이 王의 윤허를 얻어 반포된 것을 보면, 高麗史 정리보다는 通史와 李朝建國史 정리가 君臣의 合意를 얻는데 훨씬 쉬웠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歷代世年歌는 王이 睿裁를 親加했다고 한다. 말하자면 세종이 친히 監修했다는 뜻이다. 그만큼 이 책은 세종의 의지가 많이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이 책은 편찬되자마자 甲寅字로 인쇄하여 大小臣僚에게 頒賜했다고 한다. 臣僚들에게 中國史와 本國史의 概說書로서 읽히기 위하여 편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臣僚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主內容은 무엇이었는가. 위에 인용한 李季甸의 序文에 의하면, 開闢이래의 運祚長短과 國勢離合의 本末大略이 일목요연하게 담겨져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 序文에서 다시 이 책의 效用을 강조하여

「讀者들이 聖謨를 우리러 몸받아, 노래를 읊어 大要를 파악하고, 諸史를 참고하여 자세함을 알고 治亂과 存亡의 기틀을 알아서 勸懲을 삼는다면 어찌 學者에게만 유익하겠는가. 실로 우리 朝鮮 만세 자손의 영원한 귀감이 될 것이다. 우리 殿下께서 右文興化하고 후세에게 計策을 내리시는 뜻이 지극

하도다。」

고 하여, 讀者로 하여금 聖謨를 우리러 몸받게 하고자 하는 데 이 책을 편찬한 근본취지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帝王의 龜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帝王이 臣民을 교화하기 위해서 편찬된 것임을 알아야 하겠다. 世宗은 이미 帝王의 龜鑑으로서 資治通鑑訓義本을 편찬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거꾸로 帝王의 입장에서 臣民을 교화할 필요를 느꼈는지도 모른다. 그만큼 世宗은 자신을 被教育者로서 생각하기 보다는 教育者로서 생각하는 측면이 더 강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 二. 歷代世年歌의 內容

歷代世年歌는 上·下 두 편으로 구성되어, 上篇이 中國史를 서술한 歷代世年歌이고, 下篇이 本國史를 서술한 東國世年歌이다. 上篇은 127句, 下篇은 87句로서 도합 214句로 되어 있으며, 모두 7言詩이다.

上篇에서는 먼저 混沌이 열리면서 天·地·人이 生成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하여, 盤古·三皇·五帝·三代를 거쳐 元나라 順帝에 이르기까지의 中國歷史가 서술되어 있다. 上篇의 本文은 曾先之의 歷代世年歌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王朝正統문제에 있어서는 朱子의 正統論을 따르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三國은 魏吳蜀의 순으로 서술하고, 中華와 夷狄의 王朝들을 대등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尹淮가 붙인 註釋에서는 三國의 蜀을 正統으로 인정하고 있는 朱子의 資治通鑑綱目的 說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말하자면, 正統문제에 관한 한 朱子說을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司馬光說을 전적으로 좇는 것도 아니며, 兩說을 다 소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歷代世年歌는 歷代王朝의 歷代王名과 在位年代 그리고 그들의 治績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이 主內容을 이루고 있다. 尹淮의 註釋도 주로 王의 本名과 家系, 그리고 生沒年代를 밝혀주는 것에 치중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王朝名과 王名을 기억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주목적이 아닌가 생각된다.

下篇의 東國世年歌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地理를 설명하고, 이어서 檀君朝鮮에서부터 高麗末까지의 國名과 各王朝(또는 國家)의 王名, 王의 家系와 治績, 그리고 生沒年代를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서술내용이 王에 치중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歷代世年歌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 우리나라의 地理에 관한 서술은 다음과 같다.

「遼東別有一乾坤 山川風氣自區分 三方濱海北連陸 中有萬里之古國」

즉 우리나라는 遼東에 있는 별개의 天地로서 山川과 風氣가 독립되어 있는 萬里의 오랜 나라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우리나라가 遼河를 경계로 하는 萬里의 大國이라

는 것과 유구한 歷史를 가진 文化국가라는 自負心이 담겨져 있다.

그 다음, 檀君朝鮮에 대해서는 檀君의 開國이 堯의 즉위와 같은 해라는 것과 享國이 1048년이라는 것, 檀君廟(三聖堂)가 阿斯達(九月山)에 있다는 것이 서술되어 있다.

箕子朝鮮에 대해서는, 단군이 山神이 된지 164년 뒤에 箕子가 와서 41代 928년의 王朝를 세웠다는 것, 箕子는 이름이 胥餘로서 箕는 國名이요 子是 爵이라는 것, 箕子는 자기를 釋放해준 武王에게 洪範을 전하고 朝鮮에 封해졌다는 것, 그리고 箕子の 流風과 遺俗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으며, 41代에 이르러 衛滿의 공격을 받아 金馬(益山)로 南下했다는 것 등이 서술되고 있다.

檀君朝鮮·箕子朝鮮 다음에는 衛滿朝鮮·四郡二府, 三韓, 三國의 순으로 古代史 체계가 이어지고 있다. 위만조선은 3세 88년만에 漢兵에 망하였다는 것이 간략하게 서술되고 漢四郡은 南北에 眞番과 臨屯, 東西에 樂浪과 玄菟가 있었다는 것과, 四郡의 성격을 논하여 「勢難遙制 羈縻耳」라 하여, 멀리 다스리기 어려워 羈縻했을 뿐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 다음, 三韓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遂分三韓保山谷(自置郡以後, 民人相聚自保)  
 各自稱國相侵凌(遂爲三韓)  
 數餘七十何足徵(三韓各統小國, 馬韓五十四國, 辰韓·弁韓 各統十二國)  
 其中扶餘與沸流(扶餘國名在北, 又號北扶餘, 沸流亦國名) 即 今平安道成川郡  
 立國最先知幾秋  
 三韓分號辰馬弁(辰韓今慶尙道界, 馬韓今全羅道界) 弁韓今平安道界  
 鼎峙紛紛日相戰  
 始終七十二年間(自元封癸酉, 至新羅始祖即位) 甲子 七十二年  
 民風慘淡國步艱」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三韓을 漢四郡 治下에서 自生한 民族세력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과, 三韓 78국중에서 扶餘와 沸流를 立國이 가장 빠른 나라로 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三韓이 72년간 지속되었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三國은 新羅·高句麗·百濟의 순으로 國家別로 서술되어 있다. 本文은 주로 王位 계승관계를 밝히고, 細註에서는 王名과 王의 家系, 그리고 王의 업적을 소개하고 있다. 어느나라 혹은 어느 왕에 대하여 특별히 비중을 크게 두거나 褒貶을 준별하고 있지는 않으나, 新羅의 法興王의 稱王, 太宗武烈王과 文武王의 統一, 高句麗 嬰陽王의 隋兵 격퇴, 百濟 近肖古王의 文字始記 등이 칭송되고 있다. 佛敎나 異端 신앙에 대한 비난같은 것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三國에 이어 後高麗(弓裔)·後百濟(甄萱)의 王歷이 소개되고, 이어서 高麗 32王의 王位 계승관계와 治績이 소개되고 있다. 高麗王 중에서는 太祖의 三韓統一이 칭송되고 있을 뿐이며, 武臣執權期에 王權이 허약해지고 權臣이 擅政한 것이 비판되고, 동고간섭기에는 王

이 元과 婚姻관계를 맺었다는 것, 王이 荒淫하였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禍昌은 辛屯의 子로서 恭讓에 의해서 王祀가 부활되었으나. 그 역시 暗弱하여 스스로 멸망하고 하늘이 朝鮮 왕조를 열었다고 끝맺고 있다.

고려왕조에 대한 서술에 있어서도 三國시대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性理學的 名分論에 입각한 褒貶은 보이지 않고, 다만 王權이 어느 때에 안정되고 어느 때에 權臣의 도전을 받았느냐의 문제와, 어느 王이 民族統一에 공헌했으며 어느 王이 荒淫·방탕하여 國亡을 가져왔느냐에 평가의 기준을 두고 있을 뿐이다.

### 三. 歷代世年歌의 史學史的 位置

檀君朝鮮에서 高麗시대까지의 全歷史를 詩歌形式으로 서술한 최초의 作品은 李承休의 帝王韻紀(忠烈 13, 1287)이다. 歷代世年歌는 그로부터 150년만에 나온 두번째의 詩歌형식의 史書라고 할 수 있다. 두 작품은 詩歌형식(七言詩)으로 歷史를 서술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을 뿐 아니라, 上篇에 中國史, 下篇에 東國史를 서술한 방식도 서로 같다. 또한 두 作品은 내용상으로도 서로 일치되는 점이 많아서 後者가 前者를 참고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 특히 東國史 서술에 있어서 一致되는 句節이 많은 것이 주목된다. 이제 東國史 서술의 첫머리부분을 서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옆 表에서 보듯이 두 작품은 地理부분에서 1句, 三韓부분에서 2句, 도합 3句가 완전히 같으며, 그 나머지 句節도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은 매우 흡사하여 後者가 前者를 압축한 느낌이다.

中國史의 경우는 曾先之의 歷代世年歌를 그대로 옮기고 여기에 註釋을 붙인 데 불과하므로, 적어도 本文은 帝王韻紀와 無關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尹淮가 붙인 註釋에는 帝王韻紀의 記事가 出處의 인용없이 인용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따라서 中國史의 부분에서도 帝王韻紀를 일단 참고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렇다면, 帝王韻紀와 曾先之의 歷代世年歌는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진 것일까.

	帝王韻紀	歷代世年歌
地 理	遼東別有一乾坤 斗與中朝區以分 洪濤萬頃圍三面 於北有陸連如線 中方千里是朝鮮 (以下三句생략)	遼東別有一乾坤 山川風氣自區分 三方濱海北連陸 中有萬里之古國
檀君朝鮮 箕子朝鮮 衛滿朝鮮 漢四郡	생략	생략
三 韓	隨時合散浮沈際 自然分界成三韓 三韓各有幾州縣 嶺嶺散在湖山間 各自稱國相侵凌 數餘七十何足徵 於中何者是大國 先以扶餘沸流稱 (以下생략)	遂分三韓保山谷 各自稱國相侵凌 數餘七十何足徵 其中扶餘與沸流 立國最先知幾秋 三韓分號辰馬弁 (以下생략)

양자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양자의 편찬년대가 비교되어야 할 것이나, 유감스럽게도 歷代世年歌의 편찬년대가 不明하다. 作者 曾先之는 宋末元初의 사람이므로 생존 시기가 李承休와 거의 비슷하여, 실사 歷代世年歌가 帝王韻紀보다 다소 앞서 편찬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승휴가 그 책을 볼 기회가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더우기 李承休는 帝王韻紀를 지음에 있어서 어느 한 책을 참고한 것이 아니라, 三五曆紀·通鑑外紀 등 여러 史冊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으므로 실사 歷代世年歌를 보았다 하더라도 그 영향은 극히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실제 叙述內容을 비교해 보면, 두 작품은 서로 一致되는 句節이 전혀 없다. 따라서 帝王韻紀는 歷代世年歌와는 無關하게 편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帝王韻紀와 曾先之의 歷代世年歌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전자가 주로 創業主의 英雄的인 活動을 중점적으로 드러내며 반하여 후자는 創業主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王位承繼 관계에 力點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전자가 王朝創業과 王朝正統에 역점을 두었다면 후자는 王朝守成과 王室계보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前者가 元朝의 등장에서 서술을 끝내고 元朝의 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후자는 南宋에서 서술을 끝냄으로써 元의 등장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고 있는 것도 다른 점이다.

아마 이것은 曾先之가 南宋의 遺臣이라는 특이한 위치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李承休는 元의 등장과 麗元의 유착관계를 매우 긍정적으로 볼 뿐 아니라, 金나라도 高麗를 父母鄉이라고 부르고 兄弟를 맺어 通信使를 보냈으며, 金國皇帝가 高麗王에게 高麗國皇帝라고 쓴 詔書를 보낸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李承休가 金이라든지 元과 같은 北方族국가에 대하여 보인 특별한 好意는 歷代世年歌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다음에 本國史 서술에 대한 두 작품의 차이점을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 帝王韻紀는 「東國君王開國年代」라고 標題하였듯이 주로 開國君王의 事蹟을 노래한 것이나, 歷代世年歌는 「東國世年歌」라는 표제가 암시하듯이 우리나라 歷代君王의 世系를 詠歌한 것이다. 물론 帝王韻紀에서는 「東國君王開國年代」의 뒤에 「本朝君王世系年代」를 附記하여 高麗太祖에서 忠烈王 때까지의 歷代王系를 밝히고 있으나, 그 이전시대는 開國始祖와 金庾信·崔致遠·元曉·義相·薛聰·蓋蘇文 등 몇몇 臣下의 行적을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帝王韻紀의 「本朝君王世系年代」에서는 각 王의 配臣名單을 細註로 기록하고, 配臣이 아닌 朝野의 名臣도 가꿈 기록하는 성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東國世年歌」에서는 王權에 도전한 逆臣 혹은 權臣의 명단만이 細註에 소개되고 配臣이나 名臣들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帝王韻紀가 東國世年歌보다는 좀더 臣僚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로, 帝王韻紀와 東國世年歌는 本國地理와 古代史 이해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먼저 國土의 크기에 대하여 전자는 遼東의 〈中方千里 是朝鮮〉이라고 하였으나, 후자는 遼東의 〈中有萬里之古國〉이라 하여 각각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이는 世宗대에 이르러 만주

에 대한 領土意識이 드높아진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檀君朝鮮에 대한 인식은 양자가 대동소이하나, 帝王韻紀가 三神(桓因·檀雄·檀君)說話와 三危祠堂을 소개하고 있는데 반하여, 東國世年歌는 檀君에 관련된 사건만을 수록하고 있다. 또 檀君의 享國을 전자는 1028년이라고 하였으나, 후자는 1048년이라 보고 있다. 帝王韻紀의 檀君神話와 三國遺事의 그것이 서로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거나, 「東國世年歌」의 檀君 이해는 그래도 帝王韻紀 쪽에 가깝다.

箕子朝鮮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점이 보인다. 檀君이 山神이 된지 164년 뒤에 箕子가 왔다고 보는 것은 서로 같으나, 「東國世年歌」는 箕子の 이름이 胥餘로서 〈箕子〉라는 것은 〈箕國의 子爵〉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은 馬融(後漢)의 〈史記集解〉의 기사에 의거한 것인데 이는 箕子가 周武王의 신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부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箕子가 처음부터 周武王의 命을 받아 朝鮮의 王이 된 것이 아니라, 自發적으로 조선으로 도망와서 王이 되고, 뒤에 周武王이 封했다고 하는 것이 帝王韻紀의 내용인 바, 「東國世年歌」에서도 「周武己卯箕子至」라 하여 箕子가 周武王 己卯년에 조선에 왔다는 사실에 力點을 두고 周武王의 封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細註에서 언급하고 있다.

帝王韻紀와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三國遺事에서는 「周虎王即位己卯 封箕子於朝鮮 檀君乃移於藏唐京 後還隱於阿斯達爲山神」이라 하여 처음부터 周武王이 箕子를 朝鮮에 封하고 檀君이 箕子를 피하여 藏唐京으로 갔다가 뒤에 山神이 된 것으로 쓰고 있어서 帝王韻紀의 내용과는 많이 다르다. 두 記事 중 어느 것이 事實에 가까우냐는 별문제로 하고 결과만 가지고 말한다면, 帝王韻紀의 기사가 좀더 자세할 뿐 아니라 檀君朝鮮과의 마찰이나 中國(周)과의 연속성과 관련없이 箕子朝鮮이 성립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箕子의 文化的業績에 대해서도 帝王韻紀가 한층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서 洪範九疇를 周武王에게 傳한 사실과 彝倫을 밝힌 사실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箕子의 「遺風餘烈이 熙淳함을 전하고 있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속이 箕子로부터 전해진다고 하였는데, 「東國世年歌」에서도 「流風遺俗至今傳」이라고 하여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三國遺事에서는 箕子의 文化的業績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와 같이 東國世年歌는 檀君朝鮮에 관한 서술에서도 帝王韻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箕子朝鮮에 대한 서술에서도 三國遺事보다는 帝王韻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그 다음, 三韓에 관한 서술에서도 東國世年歌는 三國遺事보다 帝王韻紀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우선 三韓 70여 국 중에서 扶餘와 沸流가 가장 立國이 앞선 나라로 보는 것과, 三韓의 歷年이 72년이라고 보는 것이 서로 같다. 그러나 帝王韻紀에서는 三韓 70여국 중에 扶餘·沸流가 가장 앞서고, 그 다음에 尸羅·高禮·南北沃沮·穢·貊등이 포함된다고 보며, 이들 국가가 모두 檀君의 후예라고 하여 檀君朝鮮의 血統이 그대로 三韓으로 이어지고, 三

韓의 혈통이 다시 三國으로 계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하여 「東國世年歌」에서는 尸羅·高禮·沃沮·穢貊 등까지 三韓에 속한다고는 보지 않으며, 또 三韓이 모두 檀君 후손이라고 확인하지도 않는다. 또 三韓의 分屬國家數에 대해서도 帝王韻紀에서는 馬韓 40, 辰韓 20, 弁韓 12로 보았으나 東國世年歌에서는 馬韓 54, 辰韓 12, 弁韓 12로 보았다. 전자는 어떠한 자료에 의거한 것인지 모르나, 후자는 後漢書와 魏志東夷傳에 의거한 것 같다. 三韓의 위치에 대해서도 양자는 서로 다르다. 전자는 馬韓 王儉城을 西京(평양)으로 보고 있으나, 후자는 마한을 全羅道로 보고 있다. 이는 전자가 崔致遠說을 따르고 후자가 權近의 說을 따른 데서 오는 차이이다.

한편, 「東國世年歌」의 三韓인식을 三國遺事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매우 큰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三國遺事에서는 魏志의 기록을 따라 箕子朝鮮의 末王 準이 남쪽으로 韓地에 내려가서 馬韓을 開國하였다고 보고, 辰韓은 秦의 亡人이 세운 나라라고 하는 後漢書의 기록과, 辰韓은 燕人 避之者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崔致遠說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 下韓은 그 出自를 明白히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三韓의 出自는 대부분 中國系와 연결되고 下韓만이 不分明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箕子朝鮮이 馬韓으로 연결된다고 보는 것은 三國遺事에서만 인정되고 있을 뿐, 帝王韻紀와 東國世年歌에서는 箕子朝鮮과 馬韓을 전혀 별개로 보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三韓에 대한 인식은 三國遺事, 帝王韻紀 그리고 東國世年歌가 서로 다른 점이 보이지만, 東國世年歌의 三韓血統에 관한 인식은 그래도 帝王韻紀 쪽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東國世年歌」에서는 新羅·高句麗·百濟의 순으로 三國의 역사를 개별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순서는 帝王韻紀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帝王韻紀에서는 高句麗 다음에 後高句麗(弓裔)를, 百濟 다음에 後百濟(甄萱)를 각각 附記하고, 末尾에 渤海를 첨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東國世年歌」에서는 三國의 뒤에 後高麗와 後百濟를 몰아 넣고 渤海를 빼버렸다. 전자가 三國의 創業主의 신성한 出自와 그들의 功德을 칭송하는데 치중하는데 비하여 후자가 三國歷代王의 승계 관계에 力點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高麗朝에 대한 서술에 있어서는 帝王韻紀가 高麗太祖의 신성한 出自와 그에 얽힌 여러 說話를 상세히 수록하고, 王氏家系를 가리켜 <我皇家>라고 불려서 고려왕조가 皇帝國家임을 暗示하고 있는 것이 눈을 끈다. 이는 中國史 서술부분에서 金國皇帝가 高麗王에게 보낸 國書에 <高麗國皇帝>라는 文句가 보인다고 한 것과 아울러 作者 李承休의 고려국가에 대한 긍지가 대담한 것을 엿보게 한다. 또 李承休가 고려사 서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王位 승계관계 뿐 아니라, 王을 보좌한 配臣들을 밝히는 것이다. 이는 고려국가를 이끌어간 主體를 君臣의 협력관계에서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東國世年歌」에는 高麗太祖에 대한 聖化된 서술은 보이지 않고, 王建이 救民의 의지로 王位에 추대되고 三韓을 統一했다는



것을 간단히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의 주된 관심사는 太祖의 치적이거나, 配臣들의 구실이 아니라 王位계승관계인 것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王位계승과 王權 안정에 차질을 가져온 權臣의 행위가 집중적으로 비판되고 있다. 특히 武臣亂에 대한 평가가 그러하다. 고려말기의 역사에 대해서는 帝王韻紀가 자기시대(忠烈王代)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데서 끝맺고 있으나, 「東國世年歌」는 공민왕이후의 역사를 매우 어둡게 묘사하면서, 결국 王祀가 끊어지고 生民이 도탄에 빠져 필연적으로 李王朝가 등장하는 것으로 끝맺는다.

지금까지 東國世年歌와 帝王韻紀의 내용을 비교한 결과를 종합한다면 전자가 후자의 영향을 받아 東國史를 좀더 民族史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한 점은 同一하다 하겠으나, 후자는 歷史의 主體를 神聖한 帝王(創業主)과 그를 보필한 朝庭의 名臣과 在野의 臣民에서 찾으려 한 데 반하여, 전자는 王權 및 王位承繼의 안정에서 歷史의 정상적인 흐름을 파악하려고 하였다는 점에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하겠다. 帝王韻紀가 在野儒臣의 입장에서 君臣의 同參 속에 영광스런 국가건설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쓰여진 것이라면, 東國世年歌는 수차례의 王子亂과 功臣들의 발호를 경험하고 난 君主의 입장에서 王權을 盤石위에 올려 놓음으로써 守成의 大任을 완수하려는 강렬한 의지에서 편찬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

한편, 史學史의 문맥에서 본다면 東國世年歌가 三國遺事 계통의 歷史體系를 받아들이지 않고, 帝王韻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은, 佛敎의 世界觀 속에서 古代史體系를 산만하게 흐려 놓은 것보다는, 儒敎의 合理的 世界觀을 가지고 古代史體系를 재구성하려 했던 帝王韻紀 쪽에 더 많은 好意를 가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東國世年歌 撰者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帝王韻紀의 歷史인식도 神秘的 요소를 탈각시키지 않았다고 본 것 같다. 東國世年歌에서 創業主에 대한 聖化된 분식을 많이 털어낸 것은 아마 그러한 관점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 한다. 하지만, 世宗 28년에 편찬된 龍飛御天歌에서는 李太祖世系에 대한 聖化된 분식이 帝王韻紀에 못지 않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東國世年歌에 보인 自制가 과연 世宗의 眞意인가, 아니면 世宗 18년 당시의 王權의 한계성에서 온 것인가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 四. 歷代世年歌의 版本

歷代世年歌가 최초로 印出된 것은 世宗 18년 3월로서 世宗 16년에 주조한 소위 甲寅字로 印出했다 한다. 李季甸의 序文이 世宗 18년 2월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편찬된 지 불과 한달만에 印出된 것을 알 수 있다. 世宗은 同年 4월 경자에 이 책을 大小臣僚에게 頒賜하도록 命하였으나(世宗實錄 卷72 世宗18年 4月 庚子條) 유감스럽게도 甲寅字本은 지금 전하는 것이 없다.

현존하는 歷代世年歌는 成宗 19년(弘治 元年) 11월에 慶州府에서 木板으로 再印한 것이

다. 慶州府尹 洪貴達이 쓴 跋文에 의하면, 이 木板本은 당시 蔚山郡守이던 金閔之의 집에 소장되었던 鑄字本을 얻어다가 再刊한 것이라 한다.

이 成宗 19年刊 歷代世年歌는 현재 서울大學校 소장의 가람文庫本이 唯一하며, 그밖에 서울大 도서관의 古圖書本이 있으나, 이것은 위 가람本의 後刷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影印은 前記 가람文庫本을 臺本으로 하고, 일부 마멸된 부분은 古圖書本으로 보완하였다.